

교수 동정 및 동문 소식

김민, 백주영, 최은식 교수, 윤이상 90주년 음악회 연주회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윤이상의 음악혼이 탄생 90주년을 맞아 되살아났다. 지난 9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개막 공연과 더불어 9월 18일 리시타를홀에서는 국내 최초의 윤이상 전문 연주단인 '서울 윤이상 앙상블' 창단 연주회가 열렸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을 비롯해 백주영(바이올린), 최은식(비올라), 아오야마 사토키(오보에) 등 국내·외 연주자 18명으로 구성된 서울윤이상 앙상블은 '일곱 악기를 위한 음악'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교향적 음향' 등을 들려주었다.

최우정 교수, 음악극 <로즈> 공연

2006년 통영국제음악제 개막작으로 호평을 받았던 최우정 교수의 음악극 <로즈>가 2007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 초청되어 9월 30일과 10월 1일 양 일간에 걸쳐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다.

김영를 교수, 일본에서 관악합주 지휘

김영를 교수가 이끄는 서울음대 관악합주가 오는 11월 22일, 일본 동경에대와의 합동연주(동경에대 콘서트홀), 12월 2일 서울대 관악합주 정기연주회(예술의전당 콘서트홀)와 12월 13일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 서울대 관악합주 특별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인혜 교수,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 <가면무도회>출연

소프라노 김인혜 교수가 9월과 10월에 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공연에 참여한다. 그리고 11월에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박세원 예술총감독과 김덕기 지휘의 서울시오페라단 제25회 정기공연인 '가면무도회(Un Ballo in Maschera)'에 출연할 예정이다.

김정자 명예교수 정년 기념 음악회

김정자 명예교수의 정년 기념 음악회가 열렸다. 10월 4일 예약당에서 연주되었다.

서혜연, 박현재 교수, 오페라 <맥베드> 출연

소프라노 서혜연 교수와 테너 박현재 교수가 오페라 <맥베드>에 출연하였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여 특유의 시적 언어와 박진감 넘치는 극의 전개가 베르디의 음악성과 만난 대작으로 걸작이다. 국립오페라합창단과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가 함께 하였다.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임용

국제콩쿠르와 연주회 등을 통해 국제 무대에서 연주력을 인정받은 피아니스트 박종화씨가 서울음대 기악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부조니,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 입상, 암스테르담의 콘서트게보우, 뮌헨의 허클라스 홀, 마드리드의 오디토리오 내셔널 등의 무대에서 호평을 받았던 박종화 교수는 서울대에 '젊은 연주자 바람' 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욱 교수 예술의전당 음악감독 임명

문화관광부는 예술의전당 음악예술감독에 김영욱 서울대 음대 기악과 교수를 임명했다. 김영욱 신임 음악감독은 커티스 음대 출신으로 40여 년 이상 바이올리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한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김성태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 모교에 1억 발전기금 기탁

김성태(97) 서울대 음대 명예교수가 사재 1억원을 서울대 발전기금으로 기탁했다. 김 교수는 현재명 초대 서울대 음대 학장과 함께 1946년 음대 전신인 예술대학 음악부 창설을 주도했으며 2대 학장과 대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한 뒤 1976년 은퇴했다. 김 교수의 기탁금은 음대 장학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신수정 전 서울대 음대 학장 모교에 5000만원 발전기금 기탁

신수정 전 서울대 음대 학장이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5000만원을 기탁하였다.

서울음대 발전기금 모금 안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발전을 위해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동문님들이 내주시는 발전기금은 시설개선 및 모교 재학생 지원에 귀하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기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재원확보로 이어져 서울대학 음악대학 발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신한은행 873-03-010186 (예금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문의: 02) 880-7900

재학생 원고 모집

음대소식지에서는 음대 재학생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음대에 바라는 사항이나 실고싶은 여러가지 내용 등을 보내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콩쿠르 입상 소식

- ♫ 성악
 - 수리음악콩쿠르 (여성)1위 박소영/ (남성)2위 김은국
 - 세종음악콩쿠르 (남성) 최우수상 김성욱/ (여성) 우수상 이정은
 - 플라시도 도밍고 콩쿠르 (남성) 우승 양태중
 - 2007 The 5th Klaudia Taev International Competition Estonia First Prize and Grand Prix (여성) 동양인 최초 우승 박민지
 - 페루초 탈리아비니 국제 성악 콩쿠르 2위 & 심사위원 특별상 이응광

- ♫ 피아노
 - 한국음악협회 콩쿠르 2위 하동원 / 3위 박창규



음대 소식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뉴스레터 제2호

발행인: 신수정

발행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울특별시 신림동 산56-1 서울음대기획실 Tel: 02-880-9820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며

유난히 비가 많았던 여름이었습니다. 우리 학부형 중에도 더러 계시겠지만,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피해가 최소한에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남아있긴 해도 계절은 벌써 가을입니다. 초가을의 기운을 느끼며 우리 음악대학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9월 1일부터 우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위해 가장 부지런히 일해야 할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운 가운데 한편으로는 우리 음악대학을 위해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설렙니다. 해야 할 일들 차근차근 챙기고 또 지혜롭게 처리함으로써 맡은 임무 잘 감당하고자 마음을 다집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이 우리나라 최고의 음악교육기관임은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고, 이제 아시아에서 최고, 나아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음악교육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할 무거운 과제가 참 많습니다. 시설확충, 효율적 교과과정 개발, 발전기금의 지속적 확보와 효과적 운용, 기획업무의 전문화, 국제교류 대상의 확대 및 활발한 교류 등이 그것들입니다. 무거운 과제가 많기는 하나, 우리 음악대학 가족 모두의 의지와 열정이 하나로 모일 때 안 이루어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못합니다.

재학생, 동문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교수, 강사, 직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자랑스러운 우리 음악대학의 가족입니다.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봅시다. 세계를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갑시다.

2007년 9월 1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정태봉

정태봉 교수 제 27대 음대 학장 취임

지난 8월 31일 임기를 마치고 정년 퇴임하는 신수정 학장의 뒤를 이어 작곡과 정태봉 교수가 9월 1일에 음대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정 신임학장은 대학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서울대 안에 음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학장을 맡은 경험이 있어 업무가 낯설지는 않지만 이 전보다 훨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고 말했다. 그리고 '서울대 구성원들이 학내에서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다른 단과대의 요청에 따라 단과대가 원하는 장소에서 공연하는 것도 기획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서울대라는 종합대학에 음대가 있는 것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음대의 국제화를 위해 세계 유수대학과의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본, 독일, 미국과의 교류뿐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교류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학장은 '음대교수

들과 학생들의 실력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일률적으로 매겨지는 학교평가에서 세계대학에 밀려 아쉽다'며 '교수들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정태봉 학장님 약력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국립 Karlsruhe 음악대학 Konzertexamen 과정 졸업
대한민국 작곡상 수상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부학장 역임

김민(Violin), 김정자(가야금), 신수정(Piano) 교수 정년퇴임

지난 8월 31일 음악대학의 김민, 김정자, 신수정 세 교수가 명예로운 정년교수 퇴임식을 거행하였다. (3 page에서 계속)

newsl etter Vol. 002 / October, 2007

서울음대 5월 축제 Homecoming Day

지난 5월 19일 음악대학에서는 5월 축제 및 Homecoming Day가 열렸다. 각 과별 음악회와 특강,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약 1000만원의 발전 기금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헌신적인 자원봉사와 노력으로 맑은 날씨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행사는 많은 동문과 학부형들의 참석으로 대 성황리에 마쳤으며 앞으로 음악대학의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1. 삼성경제연구소 강신장 상무님의 _상상력 경영_ 강연 2. 경희대 명예교수 김석 선생님과 작곡가 백병동 선생님의 _맛있는 파전과 맥주_ 3. 예술관 홀 북독 4. 성악과의 작은 음악회 5. 앞치마를 판매하는 신수정 선생님 6. 광장에서 Brass Quintet 7. 광장에서의 타악기연주 8. 축제를 찾아주시는 정운찬 전 총장님, 이장무 총장님, 이호인 전 부총장님 9. 10. 11. 학부모임들 12. 학부모임들

김민 교수(음대 기악과)

“활을 놓지 않는 한 내 일은 끝나지 않는다”



김민 교수는 매년 여름에 열리는 독일 바이로이트 바그너 음악제에 30년째 바이올린 주자로 참가하고 있다. 바쁜 일정 속에서 서면으로 만나 본 김 교수는 “퇴임이라는 말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서울대에서 학장을 가장 오래 지낸 교수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음대 학장을 세 차례 역임했다. 그는 학장으로 재임하면서 독일 만하임음대와 일본 도쿄예술대, 미국 예일대 등과 활발한 교류의 길을 열어 음대 국제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외적으로는 KBS 교향악단 악장을 지냈고,

현재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김교수는 실내악 불모지였던 우리나라 음악계에 실내악의 싹을 틔웠다. 현재 서울바로크 합주단의 음악 감독인 그는 서울바로크 합주단을 세계 정상의 실내악단으로 이끌었고, 유럽 연주회장에서도 낯설지 않은 연주단체로 발돋움시켰다. 지난해 김 교수는 레오폴드 모차르트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됐고, 올해는 폴란드 문화 훈장을 받았다. 또 세계 3대 콩쿠르로 꼽히는 퀴엘리자베스 콩쿠르에 2009년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95년부터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12회 초청받았던 김교수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우리 음악계의 위상을 위해서도 퀴엘리자베스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초청된 것은 영광”이라고 말했다. 퇴임 후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작가가 펜을 놓으면, 미술가는 붓을 놓으면 정년일 텐데 저는 활을 놓으면 정년이겠지요. 현재 맡고 있는 직책들의 임기가 모두 끝나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김정자 교수(음대 국악과)

“일시적인 ‘공연’ 아닌 영원한 ‘고전’ 만들어야”



김정자 교수의 연구실 왼쪽엔 가야금이 세워져 있고, 오른쪽엔 묵직한 책들이 빼곡히 꽂혀있었다. 그는 “음악은 단순한 유희가 아닙니다. 음악이 인간의 심신을 정화시키기 때문에 ‘좌금우서(左琴右書)’란 말이 전해지는 것이죠”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임 시절, 학생을 가르치는 일과 더불어 국악의 원형을 파헤치는 작업에 몰두했다. 1976년에는 정악(正樂)을 통해 강직한 성품을 기르자는 취지로 ‘정농악회’를 구성했다. 김 교수는 ‘정농악회’를 이끄는 동안 가야금의 연구기교가 변화해 온 양상을 연구하고, 합주에 적합한 가야금 기교를 찾아냈다.

2003년 그는 시야를 성악으로 넓혀 변질돼가는 전통가곡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 ‘전통가곡연구회’를 결성했다. 또 ‘천지여운’이란 이름으로 세 차례 국악 연주회를 열어 전통가곡 연구성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연주회를 대규모 국악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악인의 진정한 사명은 일시적 재미를 위한 ‘공연’보다는 영원히 남을만한 ‘고전’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통의 정수를 간직한 고전이라면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술성과 독창성을 갖춘 국악고전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면 ‘한국적’인 토양이 탄탄해야 한다고 말하는 김 교수의 눈빛에 국악에 대한 깊은 애정이 배어있었다. 김 교수는 “선배 국악인으로서 후학을 위한 건실한 ‘토양’이 되고 싶다”는 말로 정년의 아쉬움을 대신했다. 김 교수는 퇴임 후에도 후학 지도에 힘쓰는 한편, ‘국악축제’를 진정한 음악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수정 교수(음대 기악과)

“모차르트를 사랑한 피아니스트”



“가벼운 기분이에요. 교수와 학장, 두 가지 ‘옷’을 동시에 벗으니까요”라며 퇴임 소감을 밝힌 신수정 교수. 신 교수는 1968년에 역대 최연소인 26살의 나이로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됐으며 2005년에는 음대 최초의 여성 학장에 선출됐다. ‘최초’, ‘최연소’ 타이틀과 더불어 제 1회 이화경향콩쿠르, 제 1회 동아 음악콩쿠르 입상 등 신 교수의 음악인생은 한국 음악계의 ‘시작’과 행보를 같이 하기도 했다. 신 교수는 한국을 넘어서 국제무대에서 독주회를 갖기도 하고, 국제콩쿠르의 심사위원 초청도 한국인으로는 최다 기록을 보유하는 등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도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러한 경험 때문일까 신교수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다. 신 교수는 “운이 좋았던 거죠. 우리나라 음악 수준이 올라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시기 덕택인걸요”라며 겸손하게 말한다. 그는 2004년 어머니가 지은 실내악 전용 홀의 이름을 ‘모차르트 홀’이라고 지을 정도로 모차르트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그는 “작년 이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인 동시에 나의 데뷔 50주년이었어요. 다시 그 데뷔곡이었던 모차르트의 곡을 쳐보니 내가 모차르트와 50년을 살아온 기분”이라고 말했다. “손이 굳지 않는 한 계속 피아노를 치고 싶다”며 “학장직을 퇴임한다고 해서 음악을 떠나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웃는 신교수. “음악이 국민의 정서 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에서 모차르트를 사랑하는 피아니스트의 섬세한 감성이 느껴졌다.

(대학신문에서 발췌)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Piano Academy 개최

오는 2008년 2월 18일~22일에 'Seoul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Piano Academy'가 개최된다. 미국의 음악대학인 Eastman의 Natalya Antonova, New England Conservatory의 Bruce Brubaker, Cleveland의 Paul Schenly, Manhattan의 Phillip Kawin, 그리

고 Juilliard와 Peabody의 각 피아노과 교수들과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로서,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마스터클래스와 영 아티스트들의 콘서트 및 쇼케이스 등이 열릴 예정이다.

김영옥 교수 Summer Music Academy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월 30일~8월 10일 열린 김영옥 교수의 Summer Music Academy가 뜨거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궜다. 오디션을 통과한 19명의 수강생들이 오전 10시부터 3~4회의 레슨을 받는 동안, 매일 강의실은 청강생으로 붐볐다. 올해는 특히 매번의 레슨마다 눈에 띄게 달라지는 수강생들의 기량과 매 시간 열정적으로 임하는 김영옥 교수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 모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영옥 또한 한 마디 한 마디를 할 때마다 달라지는 학생

들의 연주에 매일 밤, 잠을 잘 때에도 학생들의 연주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소감을 말씀하셨다. Music Academy 마지막 날 있었던 '김영옥과의 대화'에서 김영옥 교수는 같은 연주자로서 학생들의 입장에 공감하며, 여러 가지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연습을 할 때만큼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할 때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빠져들어 집중력 있게 해야 한다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어 Summer Music Academy의 수료식과 우수학생연주회가 있었으며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조가현(서울대), 정원영(서울대), 김정인(커티스 음악원 입학예정), 김혜지(서울예고2), 신성희(서울대) 5명의 학생들이 뛰어난 연주를 들려주었다. 후학양성에 대한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김영옥의 교수의 모습과 배우고자하는 열망 가득한 수강생들의 모습에서 한국 바이올린계의 밝은 앞날을 기대한다.

故 이강을 교수 3주기 추모 음악회



서울대 음대 작곡과 교수였던 고(故) 이강을의 3주기 추모음악회가 지난 9월 8일(토)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렸다. 그의 음악을 즐기며 사랑한 동료 음악인들과 제자들이 함께 그의 음악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는 국내외에서 많은 창작활동을 하였으며 2004년 문예진흥원에서 제정한 올해의 예술상 음악부문에서 피아니스트 장형준과 Ensemble TIMF가 연주한 피아노협주곡 'Rainy day'(2002)가 대

상을 받았다. 이번 추모음악회에서는 아울로스 목관오중주, 주희성, 김현곤, 이명주, 그리고 Ensemble TIMF가 연주를 맡았으며 그의 사진과 생전에 그가 그린 그림 등이 영상으로 제작되어 음악과 함께 보여졌다. 고(故) 이강을은 1979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와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악대학을 졸업하여 신인 작곡상, 대한민국 작곡상, 예음상 등을 수상하였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지난 2004년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타계하였다.

동양음악 연구소 학술지 간행

지난 제9회 동양음악 국제학술회의에서는 "Musical Culture of Korea, China and Japan"이란 주제로 삼국의 음악 문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비슷한 음악문화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중국·일본의 경우를 통해 21세기에 한·중·일 3국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토론하였으며 전 세계의 여러 학자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동양음악연구소에서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고, 새롭게 해석한 결과물로서 『동양음악』29집을 11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국제교류소식

동경예대와 서울음대

동경예대는 메이지 20년인 1886년에 세워진 학교로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일본 최고의 예술대학이다. 2001년 4월 체결된 서울음대와 동경예대의 교류협정은 명실상부 아시아 최고 음악대학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교류협정 체결 이듬해인 2002년 열린 서울대학교 제22회 정기오페라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국제교류기념 동경예술대학 초청공연으로 꾸며졌다. 서울음대의 박세원 교수의 기획 및 연출, 김덕기 교수의 지휘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총 5회 공연 되었으며 동경예대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세 명의 학생과 동경예대 성악과 교수인 히라노 타다히코가 공연에 참여하였다. 20여일이 넘는 기간 동안 양교 학생들은 호흡을 맞추며 한 편의 오페라를 완성하였고, 11월 7일 동경예대의 다구치 토모코(산뚜짜 역), 시다 타케히로(뚜릿뚜 역), 후지오카 겐타(알피오 역)와

서울음대 학생들이 한 무대에 선 의미 있는 무대를 선보였다. 2004년에는 10명의 학생이 동경예대를 방문해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열었다. 박하나, 이명주, 김성욱, 이해정의 아리아와 중창 등으로 꾸며진 공연은 서울음대의 높은 음악적 수준을 선보이는 계기가 되었고 청중의 열광적인 갈채를 받았다. 오는 11월 28일 동경예대 콘서트홀에서 서울음대 관악합주, 동경예대 관악합주 합동공연이 열린다.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Aaron Copland의 'El Slon Mexico', Percy Grainger의 'Lincolnshire Posy' 등을 연주하게 될 이번 공연을 통해 서울음대와 동경예대는 보다 돈독한 유대관계를 확인하고 양교가 보다 세계적인 음악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동경예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geidai.ac.jp/english/index.html>)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각과 소식

국악과 행사 • 11월 2일 국악과 제 49회 정기연주회

기악과 피아노전공 행사

- 10월 8~12일 <2007 Piano Festival>
- Guest Artist: Eduardus Halim(NYU교수, 호로비츠 마지막 제자) 변화경 교수(New England Conservatory교수)
- Concerto Concert
- 11월 20일 Timothy Ehlen(Illinois 음악대학 교수) Recital & Master Class
- 11월 중 Boaz Sharon(Florida 음악대학 교수) Master Class

기악과 관현악전공 행사

- 10월 10일 타악기 마스터 클래스 예정
- 10월 중 SNU Symphonic Band 야외연주
- 11월 26일 SNU Symphony Orchestra
- 11월 28일 SNU Wind Ensemble 동경예대 합동연주
- 12월 2일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
- 12월 22일 SNU Symphonic Orchestra

성악과 행사 • 11월 15일 성악과 합창 연주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에 함께한 서울대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Gustav Mahler "The Symphony of a Thousand"

지난 8월 23일 예술의전당에서는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 개최되어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무대에서 구스타프 말러의 심포니 8번 <천인교향곡>을 연주하였다. 서울대 오케스트라는 지난해 12월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대학 오케스트라로는 처음으로 말러 교향곡 8번을 연주해 감동을

선사한 바 있다(임현정 지휘). 특히 금호아시아문화재단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미술대학에 50억을 기부한바 있으며 서울대 음대 합창단은 윤현주 교수의 합창지도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연습하며 참여한 결과 본 무대는 한 중 양국간 대화합의 사운드로 펼쳐져 상반기 가장 주목 받는 연주무대로서 감동을 선사했다.

이달의 시

Herbsttag - Rainer Maria Rilke

Herr, es ist Zeit. Der Sommer was sehr groß.
Leg deinen Schatten auf die Sonnenuhren,
und auf den Fluren lass die Winde los.
Befiehl den letzten Früchten voll zu sein;
Gib ihnen noch zwei südlichere Tage,
dränge sie zur Vollendung hin und jage
die letzte Süßigkeit in den schweren Wein.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
wer jetzt allein ist, wird es lange bleiben,
wird wachen, lesen, lange Briefe schreiben
und wird in den Alleen hin und her
unruhig wandern, wenn die Blätter treiben.

가을날 - 릴케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아주 위대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해시게 위에 놓으시고
별판에 바람을 놓아주소서

마지막 과일들을 결실토록 명하시고
그것들에게 또한 따뜻한 이틀을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완성으로 몰아가시어
강한 포도주에 마지막 감미를 넣으시옵소서

지금 집없는 자는 어떤 집도 짓지 않습니다
지금 외로운 자는 오랫동안 외로이 머무를것입니다
잠 못 이루어 독서하고 긴 편지를 쓸것입니다
그리고 앞이 지면 가로수 길을
불안스레 이곳저곳 헤맬 것입니다

서양음악연구소 <http://wmri.snu.ac.kr>

서양음악연구소 초청강연 시리즈 "아카데미 무지카"

지난 6월 새롭게 시작된 초청강연 시리즈 "아카데미 무지카"는 국내외의 저명 학자들을 초청하여 그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학생들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학자들에게는 새로운 학문적 자극을 부여하고, 학생들에게는 음악학에 대한 학문적 경험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 첫 번째로 6월 8일 연세대학교 음악연구소의 지형주 박사를 초청, "고대음악의 도상학적 접근과 실제"라는 주제로 강연이 있었다. 지형주 박사는 국내외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분야인 고대음악을 도상학을 이용한 연구방법과 연구실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도해내었다. 서양음악연구소에서는 9월부터 12월까지 매달 한 분의 음악학자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진지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기간행물 <음악이론연구> 12집 발간 (12월 15일)

<음악이론연구>는 지난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후보지로 선정되어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음악학계를 대표하는 학술지가 되었다. 지난 7월 31일 원고신청 마감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수의 논문신청이 있었고 이들은 권위 있는 음악학자들의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발간인 논문집에 수록될 예정이다. 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은 향후 한국학술지 인용색인정보(KCI)에 등록되어 각 논문들의 피인용지수를 측정하여 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될 것이다.

최희연 교수 렉처콘서트

서양음악연구소에서는 11월 30일 최희연 교수와 베를린 예술학교(Berlin School of Art)에서 만들어진 자크 티보 스트링트리오(Jacques Thibaud String Trio)의 렉처 콘서트를 개최한다. A. Sch?nberg 현악3중주 op. 45 연주와 최희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Philip Douvier(violist)의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렉처 콘서트는 음악학의 연구성과를 음악실제 영역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도 되는 것이며, 앞으로 다양한 연주분야의 렉처 콘서트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현대음악에 대한 “조용한” 열기 오희숙(서울대학교 작곡과 교수)

현대음악은 인기가 없다. “현대음악을 좋아하는가, 자주 듣는가”라는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듣게 된다. 작곡창작 발표회도 다른 음악회에 비해 썰렁하며, 어쩌다 FM에서 20세기 작곡가의 작품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서울대 주위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의외로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것을 느낀다. 우선 고무적인 현상은, <현대음악>이라는 교양수업(핵심교양)에서 찾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이 강의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현대음악에 대한 벽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20세기 음악만을 한 학기동안 다루게 되면, 학생들은 실제적으로 매우 자세하게 이 시기의 음악양식을 접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에 학생들은 현대음악에 대한 경험의 폭을 넓히고, 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학기말이 되면 제법 진지하게 현대음악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서울대에서는 현대음악에 대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즐거운 기대까지 하게 될 정도다...

또한 현대음악에 대한 기획공연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대표적 예는 작곡과에서 주관하는 “Studio 2021”일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존 케이지에 대한 랙처 콘서트(S. Schleiermacher), 현대 작곡가 작품 발표, 그리고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주자의 랙처 콘서트 등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바르톡(B. Bartók), 힌데미트(P. Hindemith), 코플

랜드(A. Copland) 등의 외국작곡가 외에도, 박영희, 백병동, 이강을, 전상직 등 한국 작곡가의 작품들도 열린 분위기 속에 연주되었다. 더 나아가 윤이상을 비롯한 현대음악을 기획 연주하고 있는 통영 국제음악제의 활동도 주목된다. 여기서 기획된 다양한 음악회는,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대표적 현대음악곡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여러 음악회에서 현대음악 레퍼토리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새로운 변화로 보인다. 올해 동안 나타난 일련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적어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영역에서는 현대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현대음악을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도르노(Th. W. Adorno)의 조언을 귀담아 들으면 좋을 것이다: “사람들이 ‘그래, 이것이 현대음악이구나, 이에 대해 나는 관심이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이면에는 특별히 잘못된 결론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현대 음악은 음악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이라는 것. 반면에 이 사람이 말하는 음악이라는 것은, 즉 올바른 음악이라는 것은 아주 특정한 시기, 말하자면 1600년부터 1900년까지의 조성과 관계된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음악을 지지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으로서 정당화 된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바흐와 베토벤을 이해할 때, 쇤베르크를 이해할 수 있고, 거꾸로 쇤베르크를 이해할 때, 오로지 바흐와 베토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름작곡가 말러 최은규(서울대학교 기악과, 동대학원 음악학 석사 졸업. 박사과정 수료. 음악칼럼니스트)

올 여름에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이 유난히 자주 연주되었다. 지난 달 7월 20일 부천필의 말러 교향곡 제6번 연주에 이어 27일에는 함신익이 지휘하는 KBS교향악단이 말러 교향곡들 중 가장 긴 제3번을 연주해 갈채를 받았다. 또 8월에 23일에는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주최로 한중수교 15주년을 기념하는 말러 ‘천인교향곡’ 연주회도 열렸다. 19세기와 20세기의 전환기를 살아간 말러의 음악은 당시에 잘 이해되지 못했지만, 오히려 오늘날의 청중에게 강하게 어필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점차 소외되어가는 현대인들이 점차 개인주의적 삶을 추구하게 되면서 음악과 삶을 밀접하게 관련시킨 말러의 음악은 더욱 깊은 공감을 얻고 있는 듯하다.

말러는 어느 음악가들보다도 음악과 삶을 밀접하게 결부시킨 예술가였다. 말러는 그의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인간적인 고뇌와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고, 그가 남긴 교향곡들은 인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문제와 신과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갈망하는 방향의 과정이었다. 1860년 7월 7일 보헤미아 지방에서 유대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말러는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싶어 했고, 결국 37세 되던 해에 가톨릭으로 개종해 그리스도교 사회에 융화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평생 유대인 태생이라는 상처를 안고 살아갔다.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한 심한 콤플렉스를 가졌던 말러는 어린 시절에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말러의 음악 속에서 난해한 요소와 단순한 선율의 모순이 병존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불안정한 성장 배경에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말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음악에 눈을 뜨기 시작해 아직 음계를 연주할 줄 몰랐던 네 살 때부터 작곡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피아노 연주 실력은 어쩌나 큰 발전을 보였는지, 열 살 때 이미 청중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였다. 15세 때에 빈 음악원에서 음악 공부를 시작한 말러는 율리우스 엡슈타인에게서 피아노를, 로버트 폭스에게서 화성법을, 프란츠 크렌에게서 작곡을 배웠고,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다. 빈 음악원 시절 말러의 재능을 알아본 음악가들과의 교류는 말러의 음악성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말러 자신에게는 지휘보다 작곡이 더 중요했지만, 당대의 말러는 작곡가보다는 지휘자로서 더 잘 알려져 있었다. 그가 빈 오페라극장 예술감독

이라는 지위를 차지했을 때 그의 나이는 겨우 37세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지휘자로서 아무리 성공했다라도 그는 자신의 직업에 불만스러워했고, 작곡을 위한 자유로운 시간이 전혀 없는 노예 같은 오페라 지휘에 대해서 자주 불평을 토로했다. 그러나 말러의 교향곡에 나타난 개성적인 관현악법은 지휘자로서 풍부한 경험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말러의 삶과 음악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친 인물은 비단 대음악가들 뿐만이 아니었다. 말러의 일생을 지배했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바로 말러의 아내 알마 신들러이다. 알마는 유명한 풍경화가의 딸로 직접 작곡을 할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여성이었으며, 화려한 미모와 정열적인 성격으로 주변 남성들을 매료시켰다. 말러 역시 알마의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깊이 빠져들어 그녀와 만난 지 넉 달 만에 그녀와 결혼했다. 알마는 말러에게 끊임없이 음악적 영감을 불어넣은 여성이었지만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말러는 자신의 음악활동을 위해 알마의 창작활동을 제한하며 그녀의 생활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일체화시키려 했고, 젊고 생기발랄한 알마는 말러에 대한 반항심과 그의 재능에 대한 존경 사이에서 끝없이 방황했다. 운명의 해인 1907년, 장녀 마리아가 성홍열로 목숨을 잃고, 그 자신도 건강악화의 징후를 느끼고 있던 말러는 뉴욕의 오페라극장으로 이주하는 등 급격한 삶의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 후 알마가 젊은 건축가 그로피우스와 사랑에 빠진 것을 알게 된 말러는 마음의 상처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러는 알마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게 된다. 말러는 알마에 대한 강한 애증과 그 자신의 사상을 엮어 교향악사에 길이 남을 기념비적인 작품인 교향곡 제8번 ‘천인교향곡’을 작곡해 알마에게 헌정했지만, 알마의 마음은 이미 다른 사람을 향해있었다. 하지만 알마는 1911년에 말러가 삶을 마치는 날까지 말러의 곁을 지키며 그의 뮤즈로 남았다.

음악과 삶을 일치시켰던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 그의 삶과 사랑은 그가 남긴 11곡의 교향곡과 40여곡의 가곡 속에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말러의 음악은 그 자신이 표현한 바대로 그의 삶과 사상이 반영된 하나의 세계다. “나에게 있어서 교향곡이란, 하나의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SNU New Music Series I Studio 2021 Autumn Season

서울대학교 현대음악 시리즈 I 스튜디오 2021

I Sacred Music Project “Psalmen”

일시: 2007년 9월 12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영산아트홀

본 시리즈 최초로 캠퍼스를 벗어나 이루어진 “Psalmen(시편)” 공연은 Scholar Heidelberg의 지휘자 Walter Nussbaum을 초청해 SNU Chamber Choir와 SNU New Music Ensemble의 연주로 Ives, Stravinsky, Feldman, Furrer 등의 종교음악을 영산아트홀 무대에 올린다. 더불어 작곡가 전상직(본교 작곡과 교수)에게 위촉한 ‘Magnificat’ 과 작곡과 석사 과정의 주준영의 “Pater Noster” 을 함께 연주하였다.

SNU TUESDAY CONCERTS

1회 | Anicia Saxophone Quartet

일시: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2회 | EUTERPE 목관사중주

일시: 10월 30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I Music Theatre Project “A Frank Preview” (솔직한 시사회)

일시: 2007년 11월 20, 21일 오후 7: 30 장소: 대학로 게릴라 극장

음악극 프로젝트 “A Frank Preview”는 어느 다큐멘터리 감독의 작품에 대한 집착과 그가 찍는 인물들의 콤플렉스에 관한 코믹 뮤지컬이다. 서울대학교 작곡과 대학원, 학부 재학생으로 구성된 7명의 학생들에 의해 제작되는 솔직한 시사회를 통해 기존의 뮤지컬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음악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기획: 최지은, 김선 / 연출: 원보배 / 극본: 최지은 / 작곡: 김지은, 조정연, 원보배 등
음악감독: 한지원 / 무대감독: 윤소라 [웹페이지 http://studio2021.net](http://studio2021.net)

3회 | Piano Quartet/ Sonus Ensemble

일시: 11월 6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4회 | 피아니스트 박종화 교수 Concert

일시: 11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5회 | Timothy Ehlen 피아노 독주회

일시: 11월 20일 오후 4시 / 장소: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

독서의 계절 가을, 책을 읽읍시다

프랭크 맥코트의 <프랭키>

(원제: Angela's Ashes, 프랭크 맥코트 지음, 고려문화사)

-프랭크 맥코트의 자전적 성장소설, 풀리처상 수상작-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 석 주를 넘기지 못하고, 그나마 알량한 봉급을 솔로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와 잠자는 아이들을 깨워 아일랜드를 위해 죽을 것을 맹세 시키는 무책임한 아버지, 불꺼진 난롯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는 어머니, 동생들의 잇따른 죽음, 배고픔, 난폭한 선생님들, 권위적인 신부님들... 이제 프랭크 맥코트는 그 세월을 살아내어 경제공황 시절에 태어나 아일랜드 리머릭의 빈민가에서 보낸 쓰라린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을 반세기 동안 곱씹어 오다 용기 있는 솔직함으로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

<프랭키>가 우리에게 보다 큰 울림을 주는 것은, 지독한 가난, 질병, 배고픔으로 얼룩진 가족사를 바라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다. 비록 무책임한 술주정꾼이지만 프랭크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꿈을 심어 준다. 아일랜드를 구했다는 전설 속의 영웅인 쿠후린 이야기, 동생들이 태어날 때마다 일곱 번째 계단의 천사가 있어서 아기를 데려다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 등. 이런 이야기들은 프랭크의 어린 시절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된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가족에 대한 어린 프랭크의 따스한 연민과 사랑이다. 그런 연민과 사랑이 있기에 작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행복한 어린 시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 생각해 보니 값진 시절이었다고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저 감상적인 회고가 아니라 소년기라는 길고도 어두운 터널을 헤쳐 나온, 보다 성숙한 자아에 대한 대견함에서 말이다

“당신이 어느 곳을 떠든다 할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이 축복을 내려 줄 겁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까지요. 가고 안 계시면 그리워질 테니까.”

“힘없고 늙고 백발이 되어도 그녀를 어린 시절처럼 사랑하라. 땅속에 묻힐 때까지 어머니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테니까.”

-본문 내용 중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동안의 고독>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지음, 안정호 옮김, 문학사상사)

-인간 고독의 잔학성!

중남미 대륙에 얽힌 백년 동안의 생(生)과 투쟁의 역사-



“자신이 너무 늙고, 너무 쇠진해 지고,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절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느낀 그녀는 가장 나빴던 시절로 기억되는 것까지 그리워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복도에있는 오레가노의 진한 향기와, 해질 무렵 장미나무들에서 피어 오르는 수증기, 그리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짐승 같은 성질까지도 얼마나 필요했던 것인가를 깨달았다.”

미술적 리얼리즘의 창시자로 널리 알려진 가브리엘 마르케스의 노벨상 수상작으로 ‘고독’을 대물림하며 변명과 몰락을 거듭한 부엔디아 가문의 100년 역사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슬픈 운명을 그린다. 죽음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다시 살아나고, 유행과 대화하며, 돼지꼬리를 단 아이가 태어나는 등 거짓말 같은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로 그려지는 서술기법이 매력적인 이 작품은 우화처럼, 전설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소설의 종말을 말하는 것은 서구 작가들, 특히 프랑스인들의 기우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동유럽이나 라틴 아메리카 작가들에게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다름없다. 책꽂이에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 년 동안의 고독>을 꽂아놓고 어떻게 소설의 죽음을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밀란 쿤데라